

고려시대 신앙의례와 불교회화 시론(試論)

— ‘대고려’^{918·2018}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 출품작을 중심으로 —

정명희*

- I. 서론
- II. 고려시대 의례의 기록과 시사점
- III. 의례의 기본 절차와 불화의 활용
- IV. 맺음말

I. 서론

고려(918~1392)가 존속했던 시기의 동북아시아는 다양한 민족이 부침하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일어났다. 외교적 대립이나 길항 관계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주변국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물적, 인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다. 통일신라와 후삼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오월국(吳越國)이나 오대십국(五代十國)을 지나 송(宋, 960~1279)과 교류했으며, 이후 거란족이 건립한 요(遼, 916~1125), 여진의 금(金, 1115~1234) 등 북방 민족의 대두에 따른 다원적 국제 질서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접촉했다.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까지 원(元, 1271~1368)과 일원적인 외교 관계에 놓인 상황 역시 고려의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¹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¹ 장남원, 강병희 외, 『고려와 북방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한국중세사학회,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

고려불화의 정치하고 치밀한 아름다움과 조형적인 우수성은 고려 사경과 더불어 이미 그 당시에도 이름이 나 있었다. 배채(背彩)를 통해 은은하게 투영되는 중후한 아름다움이나 치밀한 금니(金泥) 문양을 만들어내는 흐트러짐 없는 필선은 2차원의 평면에 또 하나의 세계를 탄생시킨다.² 윤곽을 나타내거나 화면의 콘트라스트를 만드는 먹의 효과와 담채(淡彩)의 조화는 수묵과 담채를 능숙하게 다룬 솜씨의 결과이다. 이러한 화려한 미술은 이를 선호한 수요자의 미적 취향이 반영된 것인 동시에 고려불화의 제작 방식에 기인한다.

중세 동아시아는 그간 축적된 다양한 경전과 교리를 기반으로 신앙의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체계화된 시기이다. 본 연구는 고려불화의 뛰어난 예술성과 종교적인 숭고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례에 관한 기록을 통해 고려불화의 기능을 살펴보는 시론(試論)이다.³ 특별전에 출품된 불교미술품을 중심으로 의례의 기록과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고려불화의 시기적 편중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 전기 신앙의례의 기록이나 동시기 중국, 일본 불화의 사례도 포함시켜 의례에서 시각 매체가 수행한 기능을 살펴보겠다.

II. 고려시대 의례의 기록과 시사점

1. 고려불화의 현황

고려 전 시기에 걸쳐 외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상과 양식이 확산되었다. 송대 개보장(開寶藏), 거란대장경을 비롯한 불교 전적과 문헌이 유입되어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졌다.⁴

시대의 역사』(해안, 2018)

2 정우택, 「고려불화의 도상과 아름다움」, 『고려시대의 불화』(시공사, 1997); 정우택, 「高麗佛畫의 獨自性」, 『한국미술의 자생성』(한길아트, 1999)

3 본 논문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8년 12월 4일부터 2019년 3월 3일까지 개최된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과 연계한 한국미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12. 15)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정명희, 「고려시대 신앙의례와 불교회화 시론: 특별전 출품작을 중심으로」, 『대고려: 그 찬란한 미술』(한국미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pp. 45-56.

4 경전의 해석서인 章疏를 종합하고 오류를 수정해 교장본을 간행한 저력 역시 고려불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김영미,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 『역사와 현실』 43 (2002), pp. 47-77; 최연식, 「고려 대장경의 역사적 의미」, 『지식의 지평』 11 (2011), pp. 268-282; 이재정, 「1100년의 지혜」,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2018), 국립중앙박물관, pp. 98-99.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대부분 원나라의 압제에 의해 고려 정부가 몽고와 강화를 맺고 강화도로 환도한 1270년대 이후에 제작되었다. 문헌에 전하는 불화 관련 기록의 풍성함에 비하면 현존하는 13세기 후반 이전의 불화는 매우 귀하다. 물론 고려사경 중 연대가 가장 앞서서 <대보적경(大寶積經)>은 1006년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목종(穆宗)의 어머니 천추태후(天秋太后, 964~1029)와 김치양(金致陽, ~1009)의 발원으로 서사되었다.⁵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꽃과 풀, 천상의 악기와 산화 공덕을 올리는 보살의 표현에서 도식화되지 않은 배치와 필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불화로는 1235년과 1236년에 걸쳐 김의인(金義仁)의 발원으로 제작된 <오백나한도와 십육나한도>를 제외하면 1286년 <아미타여래도>, 1294년 일본 묘만지(妙滿寺) 소장 <미륵하생경변상도> 등 13세기 후반의 작품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예이다.

이처럼 고려 왕조 전 시간 동안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현존하는 작품의 시간 폭이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통해 보면 고려 전기부터 다양한 주제의 불화가 전각을 장엄했으며, 신앙 의례 공간에서 다각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뿐 아니라 중세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앞 시기에 비해 훨씬 세분화된 주제의 회화가 제작되었다.⁶ 형식적인 면에서 전각 벽면에 직접 그리는 벽화(壁畵)와 이동 가능한 족자 형식의 불화(幀畵)는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건축과 더불어 벽화는 소실되고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족자 형식으로만 남아 있다.⁷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⁹¹⁸·2018 그 찬란한 도



도 1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 전시 광경

5 권희경, 「고려 후기 개인발원 고려사경 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 31 (2005.9), pp. 153-200.

6 祖師堂에는 종파의 역대 조사가, 대장경을 봉안한 大藏殿에는 毘盧遮那佛會圖가 있었다. 釋迦出山圖나 達摩渡江圖와 같은 주제도 사찰에 도해되었다. 고려불화의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는 진홍섭, 『韓國美術史資料集成』 2 (일지사, 1987); 문명대, 「고려불화의 구성 배경과 내용」, 『한국의 미』 (중앙일보사, 1981), pp. 207-216; 안휘준, 「고려 불교회화의 회화사적 의의」,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7 문헌 기록을 통해 현존하는 고려불화의 봉안처를 궁중 내 법석, 왕실의 원당, 문무 관료층의 원찰, 사찰 전각 등으로 구분해 다룬 연구는 박은경, 「高麗佛畵의 변죽-本地, 畵幅, 奉安에 대한 問題」, 『미술사논단』 34 (2012), pp. 54-60.

전” 특별전(이하 “대고려”전)에는 총 34점의 불교회화가 출품되었다.(도 1) 국적별로는 20점의 고려불화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불교미술의 교류를 보여주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불화 14점도 차용하였다.(표 1) 도상별로 보면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와 천수관음도(千手千眼觀音圖)를 비롯한 관음보살도 계열이 8점, 아미타여래도로는 이탈리아 동양예술박물관과 개인 소장 <아미타여래도>, 일본 고후쿠고코쿠젠지(廣福護國禪寺) 소장 <아미타팔대보살도>,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아미타·지장병립도>의 4점이 전시되었다. 또한 <석가삼존과 십육나한도>, <오백나한도> 등 나한도 계열이 4점,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계열이 15점, <시성광여래도>가 2점이다.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둔황(敦煌) 천불동(千佛洞) 출토 스타인 컬렉션의 불화 7점, 남송대 불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도 2)



도 2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 전시 광경

〈표 1〉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출품 불교회화

연번	작품명	국적, 시대	재질	소장기관
1	수월관음도	오대	지본채색	영국박물관
2	수월관음도	오대-북송	견본채색	영국박물관
3	수월관음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메트로폴리탄박물관
4	수월관음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호림박물관
5	천수관음도	가마쿠라 14세기	견본채색	나라국립박물관
6	천수천안관음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삼성미술관 리움
7	수월관음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아모레퍼시픽
8	수월관음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9	석가삼존십육나한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삼성미술관 리움
10	오백나한도 제92수대장존자	고려 1235년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11	오백나한도 제145회견존자	고려 1236년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12	오백나한도	남송 1178년	견본채색	보스톤박물관
13	아미타여래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개인
14	아미타여래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이탈리아 동양예술박물관
15	아미타여래도	남송	견본채색	메트로폴리탄박물관

16	아미타여래도	남송	견본채색	메트로폴리탄박물관
17	아미타팔대보살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일본 廣福護國禪寺
18	아미타지장보살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메트로폴리탄박물관
19	시왕도(제5염라왕)	고려 또는 남송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20	시왕도(제8평등왕)	고려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21	시왕도(제10오도전륜왕)	고려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22	시왕도	남송 12세기	견본채색	메트로폴리탄박물관
23	시왕도 염라왕	원 14세기	견본채색	나라국립박물관
24	시왕도 태산왕	원 14세기	견본채색	나라국립박물관
25	시왕도 오도전륜왕	원 14세기	견본채색	나라국립박물관
26	지장보살도	오대 10세기	견본채색	영국박물관
27	지장보살도	남송 963년	견본채색	영국박물관
28	시왕도 두루마리	오대 10세기	지본채색	영국박물관
29	지장보살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메트로폴리탄박물관
30	지장보살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개인
31	지장보살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삼성미술관 리움
32	지장시왕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호림박물관
33	치성광불과 오성도	당 897년	견본채색	영국박물관
34	치성광여래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보스톤박물관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아미타여래 계통과 관음보살 관련 작품이 100여 점에 달하며, 그중에서도 <수월관음도>는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⁸ 불화에 어떤 주제와 내용을 그릴 것인가의 선택에는 교리적인 수요와 신앙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불화의 구성에 있어 교리적인 의미가 절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도상 차이 보다는 의례에서의 쓰임에 따라 불화가 예정되는 공간에서 기능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월관음도>의 경우에도 도상의 연원

⁸ 고려불화의 현황과 연구 성과에 관해서는 정우택, 「唐津 鏡神社 水月觀音圖의 歷程」, 『불교미술사학』 8 (2009), pp. 129-131. 불화의 후원자나 바탕, 복장물, 봉안처 시론, 고려의 종파 미술의 가능성 등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김정희, 「高麗佛畫의 發願者 廉承益考」, 『美術史學報』 20집 (2003.8), pp. 135-162; 이승희, 「고려 후기 정토불교회화의 연구: 천대·화엄신앙의 요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井手誠之輔, 「華嚴と天台の融合-高麗の阿彌陀画像を手がかりに」, 『高麗仏画-香りたつ裝飾美』, 泉屋博古館 (2016), pp. 130-144.



도 3 『고왕관세음경』, 서하본(『中國佛教版畫全集』 제 3권, p. 238)

에 대해서는 한 가지 경전으로 특정하기 어렵다.⁹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지식을 찾아 순례여행을 떠난 선재동자가 관음보살의 정도를 찾았을 때의 모습이 반영되는 한편,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이나 『고왕관세음경(高王觀世音經)』처럼 관음신앙에 기반한 여러 다른 경전도 관음보살을 주제로 한 불화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¹⁰ (도 3) 경전은 불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해 설명해주며 특정한 도상이 출현하게 된 연원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지만, 신앙되는 과정에서 불화의 쓰임은 경전의 범주를 넘어 보다 확장되었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대비다라니신주경(大悲陀羅尼神呪經)』에 의거해 천수천안 관음의 상(像)을 그려 의식을 거행하거나,¹¹ 매해 음력 7월 15일에 조상의 천도를 위해 집집마다

⁹ 林進, 「高麗時代の水月觀音圖について」, 『美術史』 102 (1977), pp. 101-117; 강희정, 「고려 수월관음도상의 연원에 대한 재검토」, 『미술사연구』 8 (1994), pp. 3-32; 황금순, 「고려 수월관음도의 도상과 신앙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¹⁰ 西夏(1038-1227)本 『高王觀世音經』은 관음보살을 부르는 효력에 대해 설한 경전으로, 사형을 당하게 된 죄인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경전을 천 번 독송하라고 했고, 이를 따르니 사형을 집행하는 칼이 세 번 부러졌다는 일화에서 유행했다. 바위에 앉은 관음보살의 편안한 자세, 버드나무가지에 정병이 꽂혀 있는 모습은 고려 수월관음도의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翁連溪·李洪波 主編, 『中國佛教版畫全集』 3 (中國書店, 2014), pp. 238-239.

¹¹ 『聖智難思。衆生所倚。若以千手千眼之方便。權示梵威。雖云萬馬萬步之精強。卽爲我虜。嗟彼戎羯。擾吾封疆。流腥臭之淫夷者。自北自東。被毒牙之吞噬者。無老無幼。原其迹素。縱天資虐戾之使然。省厥因由。示國政陵夷之所自。宜其懺悔。弭此禍殃。若弟子者。處論思之司。無守禦之計。捨幣禱神兮神莫顯應。泣血號天兮天若不聞。勢已垂窮。計將安出。謹案大悲陀羅尼神呪經云。若患難之方起。有怨敵之來侵。疾疫流行。鬼魔耗亂。當造大悲之像。悉傾至敬之心。幢蓋莊嚴。香花供養。則舉彼敵而自伏。致諸難之頓消。奉此遺言。如承親囑。茲僭丹青之手。用摹水月之容。吁』

개최하는 우란분재(盂蘭盆齋)에는 <백의관음도> 앞에서 분향을 올렸다는 기록이 전한다.¹² 이처럼 세상을 떠난 가족의 명복을 빌며 <관음보살도>를 조성한 사례가 나타나며, 조선 초에 가면 영혼의 천도(薦度)를 위한 법석에서 의례의 존상으로 사용되었다.¹³

특별전에 출품된 <천수관음보살도> 역시 11면(面), 42수(手)로 각 손에 든 지물(持物)은 천수관음의 궤에서 도상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¹⁴(도 4) 이는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11면 42수의 천수관음상과도 동일하다. (도 5) 주목되는 점은 <천수관음보살도>의 화면 하단의 선재동자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인물처

哉繪事之工。肖我白衣之相。罄披霞懇。仰點蓮眸。伏願濫借不麻。仍加妙力。如至仁廣大。憚令醜類以盡剝。以無畏神通。俾反舊巢而自却。『崔相國攘丹兵畫觀音點眼跡』, 『東國李相國集』 제 41권 釋道疏

¹² '盂蘭盆法出西天 震旦翻爲解倒懸 舉國奔馳唯恐後 愧吾流落尚如前 兩瓶花藥真無幾 一稊香烟徧大千 幸得祖堂新粳米 日中拜獻白衣仙', 『驪興吟』, 『牧隱詩稿』 35권. 짐집마다 배운 盂蘭盆會에白衣觀音畫像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¹³ '부처는 시방과 三世에 가득하나 관세음보살의 加被가 가장 신통하다 하오며, 불경이 일만 축과 일천 函이 있으나 妙法蓮華經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옵기에, 일찍이 법화경 2부를 金字로 썼고, 또 관음전 한 채를 능 옆에 지었습니다. 慈尊(觀世音)을 봉안하며, 秘典을 모셔 두고, 좋은 향을 태워 예배하며, 淸淨한 스님들을 모아 經을 선양합니다. 水月の 眞容은 티끌마다 세계마다[刹刹塵塵] 널리 나타나시고, 蓮華의 실상은 말씀마다 글자마다 분명하오니,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感하면 통해져서 恒河沙 같은 공덕이 되옵니다.' (卞季良, 『開慶寺觀音殿行法華法席疏』)

¹⁴ 김정희, 「한국의 千手觀音信仰과 千手觀音圖」, 『정토학연구』 17 (2012), pp. 149-196; 황금순, 「韓國 千手觀音圖에 보이는 千手觀音 認識과 圖像의 變容」, 『미술사연구회』 30 (2016), pp. 7-38. 관음보살의 복식이나 도상 차이와 상관없이 수월관음을 白衣觀音으로 명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관음과 동일시 한 것을 고려의 특징으로 본 논고는 황금순, 「中國과 韓國의 白衣觀音에 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18 (2014), pp. 97-129.



도 4 <십일면천수관음도>, 고려 14세기, 비단에 색, 93.4×51.1cm, 개인 소장



도 5 <금동십일면천수관음상>, 고려 14세기, 높이 81.8cm, 국립중앙박물관

림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연원을 둔 도상을 채용한 점이다. 백의관음, 수월관음, 천수관음의 도상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인식되지 않고 예배과정에서 쓰임이 확장되었다. 문헌을 통해 보면 도상에 따른 엄격한 구분 보다는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진 신앙 의례가 불화 조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폭넓게 행해진 예참과 다라니 염송 의례는 관음상에 대한 수요를 촉발했다. 관음보살이 인도하는 길의 최종 종착지는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였다. 관음에 대한 염송은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의 중간 과정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백화도량발원문」이나 관음예참은 아미타

불과 관음진언의 염송으로 이루어진다.¹⁵ 신도들은 염불과 다라니 독송을 통해 임종(臨終) 때 뿐 아니라 현생에서도 부처를 볼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러한 사례는 〈아미타여래도〉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대고려 특별전에는 독존형의 〈아미타여래도〉 2점이 출품되었다. 독존형 아미타여래도는 10점도 채 남아 있지 않은 귀한 도상으로, 이탈리아 로마 동양예술박물관 소장품은 2012년 국립박물관의 조사를 통해 고려불화로 밝혀졌다. (도 6) 도상적인 특징은 이 시기 광범위하게 유행한 아미타신앙을 기반으로 한다. 중국 저장성(浙江省) 박물관 소장 「관무량수경」 변상도는 성중을 거느리고 왕생자를 맞이하는 구성이며, 서하판본의 『아미타경』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연화대좌를 들고 ‘제자(弟子) 고헤원(高玄菴)’라는 왕생자를 접인(接引)하는 장면이 있다.(도 7) 남송본이나 서하본에 비해 고려 〈아미타여래도〉는 배경이나 서사적인 묘사를 생략하고 의례의 존상인 아미타불만을 부각해 그렸다. 이러한 차이는 판본 변상도와 불화라는 형식의 차이에서도 유래하지만 고려불화가 염송 의례와 같은 실천적인 수행에 사용되었다는 기능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도 6 〈아미타여래도〉, 고려 14세기, 비단에 색, 105.6×47.0cm, 이탈리아 동양예술박물관

¹⁵ 이선이, 「白衣解의 관음수행관 고찰」, 『불교연구』 24 (2006), pp. 165-203; 이승희, 「무위사 극락보전 백의관음도와 관음예참」, 『동양미술사학』 10 (2009), pp. 59-84.

¹⁶ 아미타여래도를 임종을 앞둔 이를 위한 來迎과 관련하여 해석한 연구는 박혜원,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와 임종

한편 관음보살도와 아미타여래도 계통의 불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불화를 널리 유포하는 공덕이나 의식 수행의 측면에서 더욱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의종(毅宗, 1127~1173) 대 나라 곳곳의 사원에 <제석천도(帝釋天圖)>나 <관음보살도>를 보내 축성법회(祝聖法會)를 열거나, 40점의 <관음보살도>를 그려 석가탄신일에 연등을 밝히게 한 기록은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⁷ 의궤나 다라니법에서는 진언을 항상 곁에 두거나 암송하는 공덕의 최종 단계가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을 눈앞에 마주하듯이 친견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고려불화는 신앙의 대상을 시각화 하여 보여줌으로써 수행과 기도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의 성취를 돕는데 기여하였다.



도 7 『불설아미타경』, 서하본(『中國佛教版畫全集』 제 3권, p. 239)

2. 의례에 사용된 불화의 기록

고려시대는 의식의 시대였다.¹⁸ 고려 왕조 전 시기에 걸쳐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와 같은 정기적인 행사와 왕실과 국가가 주도하거나 혹은 종파별로 개최되는 다양한 의례가 있었다. 왕이 행차하거나 국가가 주도하는 부정기적인 의례도 빈번하게 열렸다. 『고려사(高麗史)』

의례의 관련성 시론, 『미술자료』 80 (2011), pp. 45-67. 정토왕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수행인 16요관수행법을 위한 불화로 해석한 연구로는 이승희, 「고려 후기 입상 아미타불도상의 재해석: 천태16요관수행법의 영향을 통해서」, 『미술사연구회』 289 (2016), pp. 65-92.

¹⁷ 정은우, 「고려시대의 관음신앙과 도상」, 『불교미술사학』 8 (2009), pp. 113-127.

¹⁸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수연, 「고려시대 불정도량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김종명,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문화과학지성사, 2001); 한기문, 「고려시기 정기 불교 의례의 성립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27 (2003), pp. 29-57; 김수연, 「高麗時代 密敎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강호선, 「고려시대 국가의례로서의 불교의례 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 59 (2015), pp. 35-74.

에 전하는 불교의례의 종류만도 80여 종 이상으로 시행 회수는 1,038회에 이른다.¹⁹ 기록되지 않은 의례를 고려하면, 그 빈도와 횟수는 월등히 높았을 것이다.

의례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관정도량(灌頂道場), 소재도량(消災道場), 나한재(羅漢齋) 등 다양한 도량(道場)과 법석(法席)이 있었고 종파별로도 선호되는 의례가 있었다. 예를 들면 고려 시대 비정기적인 의례로 가장 빈도가 높은 예는 재앙을 없애는 ‘소재도량’이었다. 이는 일월성신(日月星辰)과 별자리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재난으로 봤던 당시의 천문관에 근거해 개최되었다.

문헌 기록에서 보이는 개경 주요 사찰의 가람 구성을 보아도 신앙의 분화에 따라 각 불세계를 상징하는 전각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김치양(金致陽, ~1009)이 궁성 안에 세운 시왕사(十王寺)에는 기괴한 그림과 상이 봉안되어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고, 시왕당(十王堂)이 완성되자 태자를 보내 행향(行香)하기도 했다.²⁰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소장 원대 시왕도처럼, 동아시아 보편적으로 그려진 <시왕도>는 전각의 분화와 더불어 명부신앙에 기반한 의례용 불화의 사례로서도 중요하다(도 8).²¹ 시왕은 조각상과 불화로 함께 봉안되었다.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등과 함께 도해되거나 지장보살을 독존으로 그린 불화는 현재까지 전해진 귀한 족자



도 8 시왕도(오칠염라대왕), 중국 원, 비단에 색, 일본나라국립박물관

¹⁹ 김수연, 앞의 논문 (2012), p. 112.

²⁰ ‘又於宮城北隅，立十王寺，其圖像，奇怪難狀’(『高麗史節要』卷2 穆宗宣讓大王，癸卯六年(1003년)): ‘興福寺十王堂成，命太子，行香，王，與后妃親幸，落成’(『高麗史節要』卷6 壬午七年(1102년))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2004).

²¹ 『奈良國立博物館藏品圖版目録: 佛敎繪畫篇』(奈良國立博物館, 2002), pp. 150-151.

형식의 불화이다. 불화는 예경과 의례의 수요가 있는 곳에 사용되었다.

「현화사비(玄化寺碑)」(1021년)는 현종이 양친인 안종(安宗)과 헌정왕후(獻貞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현화사를 창건한 연기가 전한다. 비문에는 현종이 국가의 번영과 사직의 안녕을 위하여 매년 4월 8일부터 사흘 밤낮으로 ‘미륵보살회(彌勒菩薩會)’를 베풀고, 양친의 명복을 위해선 매년 7월 15일부터 사흘 밤낮으로 ‘미타불회(彌陀佛會)’를 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² 현화사에서 정례화한 도량의 명칭은 전해지나, 의례에 사용되었을 의식존상에 대한 정보는 남아 있지 않다.

고려시대 의례의 현황을 유추하는 데 있어 이러한 기록의 부재는 현존하는 불교미술품의 맥락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장애이다. 그러나 국가적 규모의 도량을 장엄하고 매년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되는 의례에 사용되었을 불교미술품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고려 초부터 확인되는 각종 도량과 법석, 재의 정기적인 개최 사실에서 의식 공간에 필요한 시각 매체에 대한 수요를 알 수 있다.²³ 〈미륵보살도〉를 걸고 진행한 미륵예참의 정례화 된 사례로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자씨(慈氏)의 탕화를 그려서 봉안하고 해마다 7월 14일에 법연(法筵)을 열어 도려(徒侶)를 모아 예참(禮懺)하며 귀의(歸依)하고, 또한 크게 재(齋)를 베풀어 시친(施贖)하고 법석(法席)을 파하였는데, 태강(太康) 원년 을묘(乙卯)로부터 수창(壽昌) 2년 병자(丙子)에 이르기까지 수미(首尾)의 기간이 무릇 22년 만에 끝났다. (중략) 태강말(太康末) 계해년에 선종(宣宗)이 그 미륵불의 탕화불사를 듣고, 여러 가지 채화(彩畫)와 아울러 어서(御書) 일통(一通)을 하사하였는데, 그 어서에 이르기를, “당래불(當來不) (결략) 성회(盛會)하여 삼가 우리 스님의 공덕을 수희(隨喜)하라” 하였다. (중략) 임금께서 주청한 것을 가하다고 인가하시고, 선리궁(繕理宮)을 설치하였다. 대안(大安) 4년 기사(己巳)에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수창(壽昌) 2년 병자(丙子)에 준공하였는데, 그

²² ‘聖上又發心立願爲祝邦家鼎盛社稷益安許令每於春四月八日」又立願爲欲追薦二親冥福亦令每於秋七月十五日起首限三日三夜修設彌陀起首限三日三夜開設彌勒菩薩,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 성상계서는 다시 발심하고 서원하시어 나라의 발전과 사직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매년 봄 4월 8일부터 3일 낮 3일 밤 동안 彌勒菩薩會를 개설하였고, 또한 부모님의 명복을 빌고 천도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 다시 매년 가을 7월 15일부터 3일 낮 3일 밤 동안 彌陀道場을 개설하였습니다. 『韓國金石全文』, 中世上(1984).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²³ 김수연, 「고려 전기 금석문 소재 불교의례와 그 특징」, 『역사와 현실』 71 (2009), pp. 33-61; 남동신,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불교연구』 30 (2009), pp.153-189; 안지원, 「고려 후기 금석문을 통해 본 불교의례의 새로운 동향」, 『역사와 현실』 80 (2011), pp.123-153.

규모가 굉장히 웅대하였다. 비록 구지(舊址)에 복원하였으나, 장엄한 승개(勝槩)가 완전히 새로 건축한 것과 같았다. 그리고 또 중외(中外)의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본종(本宗)의 모든 사찰에 정제(淨財)를 시납(施納)케 하여, 매년 양회(兩會)에 걸쳐 법회(法會)를 여는 것을 연례화(年例化)하였다. 호두명수(虎頭名手)인 뛰어난 화가(畫家)를 모집하여 석가여래(釋迦如來)의 탱화와 장기이사(獎基二師)와 해동육조(海東六祖) 등의 영정을 일당(一幀)에 모두 그려서 각각 그 절에 봉안하였다. 의학자(義學者)들로 하여금 성상(聖像)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공경함으로부터 신심(信心)을 내고, 신심이 견고함으로부터 지혜를 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날마다 상생정토(上生淨土)를 발원하도록 권장하였다.²⁴

혜덕(慧德) 왕사 소현(韶顯, 1038-1096)의 비문인 「금산사혜덕왕사진응탑비」에서 해마다 7월 14일에 여는 미륵예찬을 위해 미륵불화를 그리고 예찬 법회를 정례화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문에는 정토 상생을 회구하는 의례에 사용된 또 다른 불화의 사례도 기록되었다. 뛰어난 화가를 모집해 석가여래와 법상종의 조사인 현장, 규기선사, 해동육조를 한 폭에 그린 불화를 봉안하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매일 매일의 의례에 사용했다.

1294년 일본 묘만지 소장 〈미륵경변상도〉나 지온인 소장 〈관경변상도〉처럼 현존하는 불화에 대해 그간 ‘경변상도(經變相圖)’라는 도상적 측면과 양식사적 논의에 주목했다면, 최근에는 불화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²⁵



도 9 미륵하생경변상도(용화회도), 1294년 일본 묘만지묘滿寺

²⁴ 『畫成慈氏尊像每歲取七月十四日開法筵』集徒侶禮懺故依及明設齋施驪以罷席自太康元年乙卯至壽昌二年丙子 首尾凡二十有二稔而止大康末癸亥宣宗聞其事特 賜諸般彩畫并 御書一通其書曰當來不 盛會謹隨喜吾師功德其於月日下 國銜稱弟子有以見師心奉法繼年修香火之緣 御手飛文隨喜 賜丹青之飾苟非願力甚深何 宸襟信重之如是耶師居玄化寺時 完補爲急務尋狀聞 上可其奏仍置繕理宮大安四年肇其役壽昌二年畢其功締葺宏模雖因舊址莊嚴勝槩宛若新成師又於中外本宗諸寺施納淨財計設每年兩度法會以爲常式募得虎頭 名手畫成釋迦如來及獎基二師海東六祖像都 各安于其寺欲令義學者觀像生敬自敬生信自信得慧日以勸焉 『金山寺慧德王師真應塔碑』,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 1996). 한국국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²⁵ 이승희, 「고려 후기 西福寺 觀經十六觀變相圖의 天台淨土信仰의 해석」, 『미술사학연구』 279·280 (2013.12), pp. 5-34;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경변상도는 왕실 화원인 文翰待詔 李晟이 그린 불화로 화기에는 ‘彌勒下生之圖’, ‘龍



도 10 『감지금은니불공견삭신변진언경』, 삼성미술관 리움, 국보 제210호

(도 9) 미륵불이나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하는 불화가 ‘용화회’, ‘미타회’와 같은 의례에서 수행한 역할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할 여지가 있다.²⁶

묘지명(墓誌銘), 금석문, 사경의 발원문에서 보이는 개인의 신행(言行) 역시 실천 수행이 강조되었다.²⁷ 교리의 내용 자체보다 수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얻는 공덕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존상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시각화는 『삼국유사』의 의상대사가 친견한 관음보살에서부터 분명하게 확인된다.²⁸ 의상이 수행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음을 보려했듯이 불화는 시각화를 중시하는 고려시대의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대고려” 특별전에 출품된 <불공견삭신변진언경>은 충렬왕 즉위 원년 국왕 발원으로, ‘삼중대사(三重大師) 안제(安謫)’가 서사한 뛰어난 사경이다.(도 10) 경전의 내용은 관음보살의 변화신인 불공견삭관음의 진언과 염송법, 화상법(畫像法)에 대한 것으로, 여래를 직접 보고 수기를 받으면 서방정도에 태어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경전에는 단을 마련해 십일면관세음보살의 형상을 안치하

華會圖’의 명문이 있다. 강인선, 「일본 妙滿寺 소장 1294년명 彌勒下生變相圖 연구」, 『불교미술사학』 19 (2015), pp. 101-141.

²⁶ 전각에 봉안된 상과 불화는 그 차례로 의례에 사용되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야외의 대형석조상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牧隱 李穡(1328-1396)이 지은 ‘灌足寺 彌勒石像 龍華會’ 기록에서 용화회가 지속적으로 열린 의례였으며 관촉사 미륵불상이 의례 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僧有辦來壬戌歲灌足寺彌勒石像龍華會者。求緣化文。既筆以與之。因記舊日陪慈堂自鎮浦浮舟而上。獲與是寺法會。癸卯冬。降香作法。皆如夢中。作短歌以記之’ 『牧隱詩稿』 제 24권

²⁷ 항상 경전을 읽고, 다라니를 외운 신행의 기록은 묘지명에서 빈번하게 찾을 수 있다.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한림대학교 출판부, 2006); 김수연, 「14세기 고려의 다라니신앙경향과 그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9 (2017), pp. 221-252.

²⁸ 황금순, 「洛山 설화와 고려수월관음도, 보타산 관음도량」, 『불교미술사학』 18 (2007), pp. 93-118.

고, 은으로 만든 약합과 향기로운 꽃·향수·음식·등명(燈明)을 올려 공양하는 예배법을 수록했다. 진언을 외우면 병에 걸리지 않고, 재산과 보배를 얻는 것을 비롯해 20가지 공덕을 얻고 임종 시에는 관세음보살을 따라 정토에 인도되는 등 여덟 가지 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

불공견삭관음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는 보살로 신앙되었다. 관음의 형상을 모시고 공양하며 진언을 수지 독송 하면 온갖 나쁜 악귀나 질병의 해로움을 피하고 결국은 여래를 볼 수 있었다. 관음보살을 끊임없이 예념해 부처의 수기를 받고, 정토에 가는 과정 중 관자재보살을 직접 보고 서방정토에 태어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구도는 의례를 진행할 때 중심 단에 불화를 사용하라고 한 여러 경전의 언급과도 연결된다.

의례의 확산은 불사의 공덕을 강조하는 공덕신앙과 결합되어 다양한 신앙 맥락과 도상적 규범이 종합적으로 채용되어 도해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수행을 위한 수식과 의례의 존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화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²⁹ 불교 의식은 불화와 예배자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며 불화의 기능이 확장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Ⅲ. 의례의 기본 절차와 불화의 활용

1. 염송(念誦), 예참(禮懺)과 공양의례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면서 불경, 주(呪)·진언(眞言)을 외워 읊는 것을 염송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염불(念佛)이란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고 명호(名號)를 부르거나, 구체적인 상호나 공덕을 관(觀)하는 것이다. 의례의 기본 절차인 염송을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했다. 둔황 출토 성관자재보살의 판화를 참고하면, 왼쪽은 연화대좌 위에 도상의 존명을 명시했으며 우측에는 ‘보시수지공양(普施受持供養) 즉, ‘널리 베풀고 지니고 공양하는’ 세 가지 이로운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도 11) 아래쪽에는 진언의 독송으로 극락으로 갈 수 있는 효험이 기록되어 있다. 관음보살을 관상하기 전에 염송하는 진언은 고려 후기의 승려 혜영이 서술한 관음예참법인 『백의혜에

²⁹ 불화에 대한 수요는 의식 문화가 성행한 중세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 경전과 의례에는 불화를 그리는 방법인 畫像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陀羅尼集經』에는 壇의 본존을 그려서[畫作]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단의 개설[壇場], 畫師의 태도와 전후 절차에 대해서도 수록했다. 畫師는 날마다 八關齋戒를 받고 香湯에 목욕을 했으며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규정과 불화를 완성한 후의 點眼法과 같은 절차가 대표적인 내용이다.



도 11 관세음보살판화, 지본 인쇄, 중국 오대, 39.9×17.0cm
 도 12 아미타불 판화, 대성문수보살 판화, 프랑스 국립도서관 (中國佛教版畫全集 1권, p. 56)

참(白衣解禮懺)』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다. 또한 48대원을 세운 아미타불이 그려진 판화에는 염불 수행을 통해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가 아미타불을 떠올리며 진언을 외우고 관상하는 법이 수록되었다.(도 12)

이처럼 진언을 항상 곁에 두거나 암송하는 공덕의 최종 단계는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을 눈앞에 마주하듯이 친견하는 것이었다. 유포 방식이 판화와 같이 다수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지 혹은 특별전에 출품된 둔황 천불동의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처럼 빈 방제를 가지고 있는 미리 제작된 불화의 형식이었는지는 차이가 있다. (도 13) 둔황 <수월관음보살도>의 경우에도 비단 탁의를 덮은 단에 놓인 향로와 기물을 통해 의식단에 봉정되는 관음보살의 모습을 도해했다. 손 향로를 든 공양자의 모습은 <수월관음도>의 도상과 더불어 10세기 경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잡았다. 염송과 공양으로 존상을 청하는 현실의 인물과, 의례의 결과 눈앞에 현출하는 관음보살의 모습이 한 화면에 재현되었다.

염불과 염송에도 소리와 시각적인 수행으로서의 이미지가 함께



도 13 수월관음도, 오대 또는 북송 10세기, 비단에 색, 70.5×55.0cm, 영국박물관



도 14 염주, 개성 출토, 고려 14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도 15 수정염주를 든 나한(오백나한도), 남송 1178년, 일본 다이도쿠지

필요했다. 형상을 공양하며 진언을 수지, 독송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불이나 염송을 위해 횃수를 세는 의식구인 염주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이번 “대고려전”에는 개경 출토의 수정 염주를 함께 전시했다.(도 14) 『불설다라니집경(佛說陀羅尼集經)』의 아미타불 화상법(畫像法)에는 ‘아미타불께 공양 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수정 염주이다. 수정염주로 진언을 송하면 죄업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마치 구슬이 투명하게 비치는 것과 같다’고 했다.³⁰ 전시에 출품된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수월관음도> 역시 붉은 실로 꿰 수정염주를 들고 있다. 『지장시륜경(地藏十輪經)』 등 여러 경전에서도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염송의 효과와 공덕을 강조하였다. 일본 다이도쿠지 소장 남송대 오백나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음보살을 그린 불화를 예경하는 나한은 염주를 돌려 염송하는 모습으로 재현되었다.(도 15)

염송은 동일한 도상이 확산되고 유포되는데도 기여했다. 고도로 훈련된 지식 계층과 승려를 위한 수행도 있었지만, 마음 속 깊이 여래의 구체적인 모습과 공덕을 떠올리는 관상(觀想)은 자신이 지은 업을 참회하여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정토왕생에 이르고자 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관상은 고도로 훈련된 지식 계층인 승려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마음과 몸과 입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여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정토왕생에 이를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성행한 다라니신앙과 염송의례의 정비는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다. 다라니를 지속적으로 염송하는 데 있어서도 존재를 친견하기 위해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기도와 의례가 진행되는 개인

³⁰ 『한글대장경 佛說陀羅尼集經 外』(동국역경원, 2003).

의 원당, 사찰과 같은 공공의 장소, 궁궐의 내전(內殿)에도 불화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밀교 의례에서만만큼 화상법이나 도상의 격식을 엄격하게 인식했던 것 같지는 않다. 고려불화에서 하나의 형식이 만들어진 후 유사한 형식이 반복적으로 제작되거나 다수의 동일한 도상이 제작된 것도 염송과 염불, 참회와 같은 주요한 의례의 구성 요소로 비롯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송대 정립된 불교의례와 청규(淸規)의 도입은 고려시대 의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 불화는 지속적인 예경을 가져오는 매체로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지은 삼업(三業)을 닦고 참회하며 예경하는 예참(禮懺)은 의례의 기본 절차로 자리 잡았다.³¹ 특히 아미타불에 대한 예참은 종파나 신앙 계층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대각 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의 어머니인 인예태후는 만일결사를 열고 천태 예참법을 수행했다. 천태종을 중심으로 유입된 예참의례는 여러 종파로 파급되는데, 법상종(法相宗)의 미륵예참이나 『점찰업보경(占察業報經)』에 근거한 참회 수행은 대표적인 사례이다.³²

예참을 위해서는 번과 꽃을 걸고 등을 켜고 향을 올리고, 마음을 모아 불보살과 성현이 도량에 임할 것을 청한다. 삼보(三寶)에게 공양과 예경을 올리고 경전을 외우며 참회를 행하고, 명호를 부르며 존상의 주변을 돈다. 공덕을 회향하며 발원하는 일련의 절차에 불상과 불화, 공양구가 사용되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주성미타조성입안발원문(鑄成彌陀造成立案發願文)>(1301년)에도 과거의 모든 죄업은 참회로서 사라진다는 인식이 분명하게 확인된다.³³ 삼보 앞에서 정성을 내어 참회하고, 옛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면 올바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예불과 참회는 의례의 절차로 확산되었다. <아미타불회도>와 <수월관음보살도>도 예참 의례의 광범위한 보급과 관련해 해석할 수 있다. 예참은 개인의 수행 공간 뿐 아니라 다수가 모인 의

31 강동균, 『淨土信仰에 있어서 儀禮·儀式的 意義』, 『정토학연구』 6 (2003), pp. 9-22; 정각, 『한국의 불교의례』 (운주사, 2001); 이승희, 앞의 논문 (2009), pp. 59-84.

32 예참은 종파에 상관없이 유행했다. 법상종에서도 관음예참과 미륵예참 등 참회를 중시했다. 津億에 의해 주도된 지리산 수정사의 점찰회를 보면 無量壽佛을 받들어 함께 서방에 이르기를 목표로하며 독경, 염불, 참선이 이뤄졌다. (權適, 『智異山水精社記』, 『東文選』) 고려 후기 법상종은 원 지배하의 불교계에서 다시 부흥하는데 柳墩은 속리사의 주지였던 혜영에게 백의예참을 註釋해주도록 요청하자 이에 여러 경문을 참고하여 『白衣禮懺解』 1권을 찬술했다. (『한국불교전서』 6, p. 411) 또한 彌授(1240-1327)는 『慈悲道場懺法述解』를 저술해 참회를 통해 죄업을 소멸 시킴으로써 재난을 막고 이로움을 얻으며 궁극적으로는 정도에 왕생하고자 했다. 미수는 內殿懺悔師로서 참회 부를 개설하여 승정을 專管했다. 김장숙, 『高麗時代 法相宗의 懺法修行』, 『불교학연구』 4 (2002), pp. 109-127; 박용진, 『고려 중기 의천의 불교의례와 그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pp. 147-176; 김영미, 『고려 전기의 아미타 신앙과 천태종 예참법』, 『사학연구』 55, 56합집 (1998), p. 95; 허형욱, 『불교, 중세문화의 중심』,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국립중앙박물관, 2018)

33 정은우·신은제, 『고려의 聖物, 佛服藏』 (경인문화사, 2017).

례에도 행해졌다.

어떤 의식이든, 의례의 기본은 공양 절차였다. 불, 보살, 나한에게 향, 꽃, 등, 음식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는 도량을 깨끗이 하여 단(壇)을 가설하고 법식에 맞는 물품과 장엄구, 공양구를 갖춘 후 의례의 존상을 청했다. 단의 설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존상을 떠올릴 수 있는 매체였고, 불화는 공양의례의 진행에 있어 수행의 결과 만나게 될 존상을 상징했다. <수월관음도>, <아미타불도>, <나한도>, <치성광불도>는 각각의 신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지만, 공양 의례는 모든 불화의 앞에서 행해졌다.

공양 의례에 있어서 불화의 쓰임을 나한의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³⁴ 나한의 존상과 공양물을 배열한 뒤 나한을 권청해 공양을 올리는 의례는 송대 나한공(羅漢供)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조진[成尋]의 <참천태오대산기(參天台五臺山記)>와 같은 입승 승려[入宋僧]의 기록에서도 나한공양은 사찰의 주요 법회이자 연중행사의 하나였다.³⁵ 고려의 나한재 역시 나한을 봉청해 공양을 올리고, 여기에 반승(飯僧)이 수반되는 대규모의 의례였다. 그 내용과 절차는 『법원주림(法苑珠林)』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을 피우고 나한을 청해 자리를 마련하고 목욕을 권하며 차와 음식을 올리는 법 등이 상세한데, 살아있는 성승(聖僧)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공양법으로 진행해야 했다.

이러한 공양 의례의 구성은 이후 다변화되는 의례에 있어서도 기본 골격으로 유지되었다. 다이도쿠지[大德寺] 소장 나한도로 알려진 <오백나한도>는 원래 남송대 중국 저장성 Ningbo[寧波]의 혜안원에 봉안되었던 불화이다.³⁶ 한 폭에 5명씩을 그려 총 100폭으로 구성했으며, 일본 다이도쿠지에 82점, 보스턴박물관에 10점, 워싱턴 프리어갤러리에 2점 등 총 94폭이 전한다. 특별전에 출품된 보스턴박물관 나한도는 네 명의 나한과 이국적인 복식의 공양인이 향을 피워 올

³⁴ 고려시대 나한신앙과 다양하게 전개된 나한도의 양상에 관해서는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을 비롯해 다수의 논문과 저작을 참고할 수 있다. 1235년과 1236년에 조성된 <오백나한도와 십육나한도>를 중심으로 나한신앙과 공양의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정명희, 「고려시대 나한도의 조성고 신앙 의례」, 『보조사상』 49 (2017.11), pp. 15-78.

³⁵ 成尋, 『參天台五臺山記』; 宮崎法子, 『傳齋然將來十六羅漢圖考』, 『鈴木敬先生還曆記念 中國繪畫史論集』(東京: 吉川弘文館, 1981), p. 158; 高崎富士彦, 『日本の美術 234: 羅漢圖』(東京: 至文堂, 1985); 한지만, 「북송대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 특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5권 3호 (2016); 권남규, 「明兆 筆 東福寺 五百羅漢圖 연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³⁶ 谷口耕生, 「聖地寧波をめぐる信仰と美術」, 『特別展 聖地寧波』, 2009,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井手誠之輔, 「大德寺五百羅漢圖の成立背景」, 『大德寺伝来五百羅漢圖銘文調査報告書』, 2011, 奈良國立博物館·東京文化財研究所; 신광희(2011), 「한국 나한도의 독자성」, 『미술사연구』 25, pp. 309-337; 혜안원 소장 오백나한도가 일본 다이도쿠지에 전래된 경위에 관해서는 권남규, 앞의 논문, pp. 12-19.



도 16 <오백나한도>, 남송 1178년, 비단에 색, 112.5×52.8cm, 미국 보스턴박물관
 도 17 <오백나한도>, 남송 1178년, 111.5×53.5cm, 일본 다이도쿠지

리자, 구름 사이로 나한이 현출하는 장면을 그렸다.(도 16)

용을 항복시키고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나한의 신통력을 도해한 장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의례의 공간으로 강림하거나, 공양의 각 단계를 도해한 <나한도>에 주목할 수 있다.(도 17) 나한도가 걸린 행랑에서 공양을 올리는 장면은 고려시대 성행한 나한제 기록과도 연관된다. 서경(徐兢)이 보제사를 방문하고 남긴 기록에서, 왕실의 궁전을 능가하는 보제사의 규모와 주불전인 나한보전 중앙에 석가삼존과 오백나한상이 있고, 오백나한을 그린 불화는 양쪽 행랑[兩廡]에 걸어 놓았음을 알 수 있다.³⁷

³⁷ 『廣通普濟寺. 在王府之南. 泰安門內. 直北百餘步. 寺額. 揭於官道南向中門. 榜曰神通之門. 正殿極雄壯. 過於王居. 榜曰羅漢寶殿. 中置金仙. 文殊. 普賢三像. 旁列羅漢五百軀. 儀相高古. 又圖其像於兩廡焉.』 『高麗圖經』

2. 의례의 정례적 개최와 불화

의례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의식을 일정 시점에 거행하도록 하는 교리적인 맥락도 있지만, 사찰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운영과도 관련된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국사 탄문의 비문을 참고할 수 있다.

개보(開寶) 5년(972년) 대사(大師)가 천불도량(千佛道場)에 들어가 향을 사르고 기도하던 중, 7 일째 되는 날 밤 꿈에 5백 명의 스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스님의 소원을 부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알려드리니, 화사(畫師)를 청하여 오백나한탱(五百羅漢幀)을 그려 안선보국원(安禪報國院)에 모시도록 하십시오.”라고 권했다. 대사(大師)가 꿈에 이 같은 지시를 받고 말하기를, “옛날 내가 보원사(普願寺)에 있을 때, 3분 화엄경을 봉지(奉持)하고, 날마다 중야(中夜)에 불상을 모신 법당에서 경행(經行)하기를 몇 년을 계속하였다. 홀연히 어느 날 밤 삼보전 객실 앞에 한 스님이 있기에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성주원(聖住院)에 주지(住持)하는 오백승(五百僧)인데 인연 따라 제각기 지나게 되어 이곳을 경과하게 되었으니, 원컨대 여기에 머물도록 해주십시오.’하고 입방(入榜)을 요청하였다. (중략) 그 후 이 성스러운 나한의 덕을 갚기 위하여 해마다 춘추가절에 나한의 묘재(妙齋)를 베풀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그렇게 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므로 제자들이 이를 항례(恒例)로 기록하였다.”³⁸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의 기록을 보면, 천불도량에서 기도하던 탄문의 꿈에 오백 명의 승려가 나타나 오백나한탱화를 그려 안선보국원에 모시라고 하였다. 오백 명의 승려로, 혹은 성주원의 주지로 현몽한 오백나한의 덕을 갚기 위해 매해 춘추가절에 나한재를 베풀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를 항례로 삼았다. 나한에 대한 신앙은 현실의 승려에게 투영되어 때로는 동일한 존재로 신앙되고, 오백나한에 대한 봉양은 절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³⁸ “...開寶五年大師特爲儲后年齊鸞筭日盛龍樓扶玉宸以儲休佐瑤圖而演慶迺入千佛道場焚禱經七日夜夢有五百僧來日師所願者佛之聽之故奏請畫師敬畫五百羅漢安置於安禪報國院(중략)故爲感靈安醮聖德每春秋之佳節設羅漢之妙齋所以然也弟子識之(하략)〈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上(1984)(http://gsm.nricp.go.kr/_third/user/viewer/viewer03.jsp)

임춘(林椿, 1154~1184)이 지은 <묘광사십육성중회상기(妙光寺十六聖衆繪象記)>에서도 사찰에서 설행되었던 나한의례와 관련한 의미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³⁹

…… 천태상인(天台上人)중에 계현(契玄)이라는 이가 주(州)의 묘광(妙光)이라는 절에 거처하였다. 내가 이곳에 온 지 3년 만에 우연히 찾아가서 그를 만났는데, 오래된 전각 한곳에 성중(聖衆)의 회상(繪像)을 모신 곳이 있는데 (중략) 전하는 말에는 이 화상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궁중에 모셨던 것이 세상에 흘러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 하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먼지가 묻고 좁이 먹어서 채색이 흐려지고 모양이 훼손되어 흐릿해져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기에 내가 이 절을 맡아서 받들면서 처음으로 펴보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믿음과 정성을 내어 특별히 그림 그리는 사람을 구하여 수선하고 보충하여 완전히 새롭게 하여 옛 모습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아울러 당(幢)과 번(幡)이며 궤(几)를 마련하였고, 작은 종(鍾)과 반자(盤子)를 주조하기도 하고 법라, 바라[螺鈸]·기명(器皿) 등 불화를 모시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이 절간 안에 받들어 두어 영원히 공양에 충당하게 하였으며, 또 약간씩 지축한 것을 가지고 해마다 봄 가을에 경건히 재연(齋筵)을 베풀어 이것으로 일정한 형식을 삼게 하였습니다.⁴⁰

천태상인(天台上人) 계현(契玄)은 불화를 보수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화사를 청해 불화를 복원 수복했다. 불사는 불화 수리에 그치지 않고 불화를 봉안한 후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나한재를 베풀 수 있도록 의례용 설비를 갖춰놓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불화를 모시기에 필요한 기구에 대한 인식과 재연(齋筵)에 소요되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불전을 장엄하는 당(幢)과 번(幡), 범음구(梵音具)로 사용할 종(鍾), 반자(盤子), 법라, 바라[螺鈸], 향을 피우기 위한 향로나 공양 의례를 위한 기명(器皿)이 갖추어졌다. 나한의례를 개최하는 것이 항구화 되면서, 상과 그림의 조성 뿐 아니라 의례를 위한 법구와 기물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이렇게 형식이 갖춰지자 매년 봄과 가을에 나한 의례를 베푸는 것을 항규로 삼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³⁹ 『西河先生集』卷第五, 記, <妙光寺十六聖衆繪象記>(11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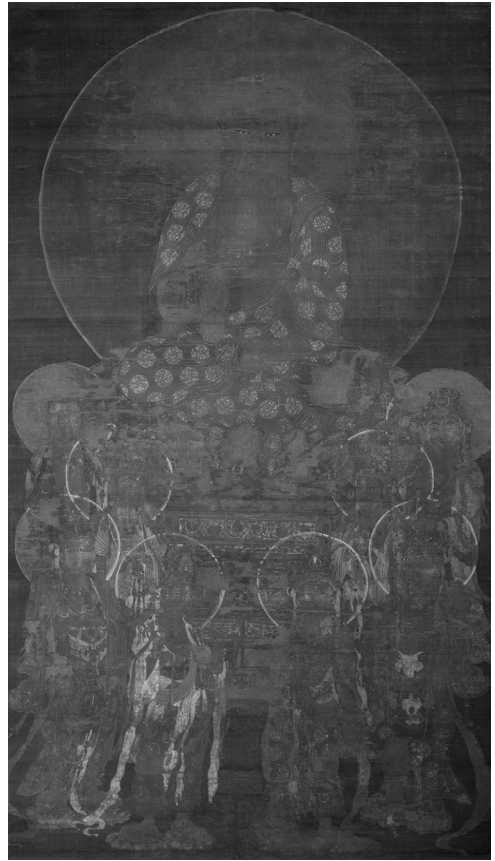
⁴⁰ “(신략) 特募工修補使完而新之 頓還舊觀. 功既畢 兼備幢幡几案 或鑄小鍾 盤子螺鈸器皿 凡百莊嚴之具 奉安于茲宇之內 永充供養 仍以衣鉢之儲 當每年春秋 度設齋筵 以爲恒範. 用此勝利因緣. 祝我聖上陛下. 受諸天覆護. 壽籙增延. 邦基有永. 邊鄙無虞. 文恬武嬉. 民物舉安. 調玉燭於四時. 混車書於萬里. 而得無象之大平矣.” 『東文選』권 65(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일련의 기록에서 공통되는 점은 불화와 의례용 장엄구, 범음구, 공양구를 갖추고, 매년 재를 정기적으로 베풀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물론 사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그 이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도 있다. 비사문천과 관음보살이 봉안된 호지불의 소유자인 남원군부인 양씨의 경우는, 쌀과 곡식을 희사해 그 이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 18) 이러한 직접적인 물질적 지원 이상으로 불교미술품의 조성은 지속적인 의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아미타불과 여덟 보살을 한 화면에 그린 〈아미타팔대보살도〉는 고려시대 인기를 누린 특징적인 도상 중 하나이다. (도 19) 당시에도 서방미타와 여덟 보살을 그리고 장명(長命)을 설치한 기록이 있다. 당(堂)의 주불로 미타팔대보살을 갖추둔 전말을 기록한 『오대산수정암중창기』를 참고하면, 불화를 새로 봉안하고 장명을 설치하거나 정병과 집기를 마련함으로써 공양과 예불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교회화가 신앙의 대상을 상징하는 일차적인 기능 뿐 아니라 사찰의 항구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의례에 필요한 물품은 1993년 도로공사 발견된 사뇌사명 향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향로에 남은 명문으로 나한상의 개수에 맞춘 향로와 등이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도 20) 공양구와 의식존상에 대한 수요



도 18 비사문천과 관음보살 불감, 남원군부인 양씨의 호신불, 고려 1156년 이전, 국립중앙박물관



도 19 〈아미타팔대보살도〉, 고려 후기, 비단에 색, 155.4×87.2cm, 일본 고후쿠고코쿠젠사

는 100개의 불, 보살, 나한상을 위해 만든 해안사 향완 명문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⁴² 『인왕경』에 근거하는 인왕백고좌회(仁王百高座會)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호국법회의 하나로, 백 개의 등불을 밝히고 백 개의 불상과 보살상, 나한상을 준비하고, 다섯 보살의 형상을 만들어 공양한다. 국왕이 매일 『인왕경』을 직접 읽고 백 명의 고승을 초청해 반송하면, 천재지변과 외침으로부터 국토를 지켜준다는 것이다. 백좌회를 위해 만든 향완은 100개의 불보살상, 나한상 앞에 놓여 사용되었을 것이다. 특정한 도상의 여러 점의 불상, 불화가 조성되는 사례가 이러한 의례의 수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³

의례는 사찰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었다. 고려불화는 신앙적인 측면 이외에도 의례를 정규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미륵보살도>를 새로 조성해 미륵예참을 수십 년에 걸쳐 설행하



도 20 무오년명 향로, 청주 사뇌(내)사지 출토, 국립청주박물관

41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학술조사보고서』, 국립청주박물관, 2015. 사뇌사지 <羅漢堂> 銘 香爐에는 사내사 나한당(전)에 향로를 무오년에 만들어 바치다."라는 글이 점열로 향로 굽에 찍어져 있다. 또 한 점의 뚜껑 있는 향로에는 "청주 사내사 나한전 앞단에 놓을(延仲) 향로 등으로 뚜껑 향로(合香) 28개와 등 26개를 함께 무오년(1138년·1198·1258)에 만들었다."라는 명문이 있다. '靑州思內寺羅漢殿(延)仲香等合香卅八 燈廿六 共戊午成'

42 '貞祐九年辛巳二月日樞密院使御史大夫吏兵部尙書上將軍崔瑪施納海安寺百座排鑄香垵此樣一百入重二斤九兩印'허홍식 편, 『貞祐九年銘銀絲香垵』, 『한국금석전문』 중세下 (1984), p. 989.

43 日本 鎌倉時代に 제작된 奈良 西大寺 소장 釋家菩薩羅漢像은 100쪽의 불, 보살, 나한을 도해해 仁王會에 사용된 불화의 예로 귀한 사례이다. 『王朝の仏画と儀礼』 京都国立博物館, 도20, p. 68.

거나 〈아미타팔대보살도〉를 봉안하고 장명을 설치한 것도, 교단의 운영에 있어 불화와 의례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⁴⁴

IV. 맺음말

이상에서 “대고려” 특별전에 출품된 불교회화를 중심으로 신앙의례에 관한 기록과 불화와 의 연관성을 시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불화는 13세기 후반 이후 고려 후기의 한정된 시기의 것만 남아 있기에, 문헌 기록에서 확인되는 고려 전기 불교회화와 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고려불화는 일상적인 예배에서부터 특정 일시에 개최하는 의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사찰에 봉안된 불화는 예배 존상을 상징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의례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불화의 기능은 시각적인 수행법과 관련 있다.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면서 다라니를 염송하거나 여래의 구체적인 상호나 공덕을 관하는 수행에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필요했다. 문헌이나 묘지명, 복장발원문에서 언급되는 신앙 의례에서는 경전을 읽고, 불보살의 명호나 진언을 외우며 죄업을 참회하는 절차가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실천적 수행의 방식으로 존상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관상하며 예참하는 절차는 고려시대에 일반화되었다. 『고려사』의 기록에서 사찰에 행차한 왕과 왕후가 불화를 관(觀)하였다는 ‘관불[觀佛, 觀佛畫]’의 용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셋째, 고려불화에서 동일한 도상이나 유사한 형식과 모티브가 반복되는 이유를 염송과 예참 의례의 보급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보았다.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아미타여래도〉의 두 주제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불화를 널리 유포하는 공덕에서 선호되었기 때문인 점도 있다. 동시에 동일한 주제가 여러 다른 의례에 활용되었던 것은 수행 의례의 영향이 팽배했던 고려 신앙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각 존상이 갖춰야 할 화상법을 엄격하게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다라니의 염송, 수지, 공양을 강조한 고려시대 의례의 특징은 유사한 도상의 불화가 제작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염불과 염송, 관상, 공양, 참회, 발원과 같은 절차는 오늘날 불교의례의 보편적으

⁴⁴ 『化紙墨印華嚴, 法華有註者各一部. 又以說法所得布施. 畫西方彌陀八菩薩. 置長明□本. 推其餘. 助印經之費』 『休上人에게 준 글』, 『목은문고』 제8권, 서

로 행해지는 절차이나 그 의례의 전통이 이미 고려시대에 구체화되고 정립되었음을 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별 의례와 불화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현존하는 기록과 자료의 제한적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의례라는 맥락에서 불화를 볼 때 숨겨져 있던 테마와 고려불화의 풍부한 기능, 더 나아가 고려가 이룬 문화적 성취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주제어(key words)**_고려불화(高麗佛畵, Goryeo Buddhist Painting),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Water-Moon Avalokitesvara), 아미타여래도(阿彌陀如來圖, Amitabha Buddha), 공양의례(供養儀禮, Offering ritual), 염불(念佛, Buddhanussati), 다라니 염송(念誦, Dharani recitation), 예참(禮懺, Prayers and confessions)

■ 투고일 2019년 3월 28일 | 심사게시일 2019년 4월 6일 | 심사완료일 2019년 5월 19일 ■

참고문헌

1. 사료, 도록, 단행본

- 『韓國佛教全書』.
- 『大德寺傳來五百羅漢圖銘文調查報告書』, 奈良國立博物館·東京文化財研究所, 2011.
- 국립중앙박물관, 『高麗佛畫大展』, 2010.
-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2018.
-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6.
-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2004.
- 김종명,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문학과지성사, 2001.
-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장남원, 강병희 외, 『고려와 북방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 장각, 『한국의 불교의례』, 운주사, 2001.
- 정은우·신은계, 『고려의 聖物, 佛服藏』, 경인문화사, 2017.
- 진홍섭, 『韓國美術史資料集成』2, 일지사, 1987.
- 한국중세사학회,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시대의 역사』, 해안, 2018.

2. 한국어 문헌

- 강동균, 「淨土信仰에 있어서 儀禮·儀式의 意義」, 『정토학연구』6, 2003.
- 강인선, 「일본 妙滿寺 소장 1294년명 彌勒下生變相圖 연구」, 『불교미술사학』19, 2015.
- 강호선, 「고려시대 국가의례로서의 불교의례 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59, 2015.
- 권남규, 「明兆 筆 東福寺〈五百羅漢圖〉 연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권희경, 「고려 후기 개인발원 고려사경 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31, 2005.9.
- 김수연, 「高麗時代 密敎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수연, 「고려 전기 금석문 소재 불교의례와 그 특징」, 『역사와 현실』71, 2009.
- 김수연, 「14세기 고려의 다라니신앙경향과 그 성격」, 『한국중세사연구』49, 2017.
- 김영미, 「고려 전기의 아미타신앙과 천태종 예참법」, 『사학연구』55,56합집, 1998.
- 김정희, 「高麗佛畫의 發願者 廉承益考」, 『美術史學報』20집, 2003.8.
- 김정희, 「한국의 千手觀音 信仰과 千手觀音圖」, 『정토학연구』17, 2012.
- 김창숙, 「高麗時代 法相宗의 懺法修行」, 『불교학연구』4, 2002.
- 남동신,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불교연구』30, 2009.

- 라정숙, 「고려시대 지장신앙」, 『사학연구』 80, 2005.
- 박용진, 「고려 중기 의천의 불교의례와 그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 박은경, 「高麗佛畵의 변죽-本地, 畵幅, 奉安에 대한 問題」, 『미술사논단』 34, 2012.
-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신광희, 「한국 나한도의 독자성」, 『미술사연구』 25, 2011.
- 안지원, 「고려 후기 금석문을 통해 본 불교의례의 새로운 동향」, 『역사와 현실』 80, 2011.
- 이선이, 「白衣解의 관음수행관 고찰」, 『불교연구』 24, 2006.
- 이승희, 「무위사 극락보전 백의관음도와 관음예찬」, 『동양미술사학』 10, 2009.
- 이승희, 「고려 후기 西福寺 觀經十六觀變相圖의 天台淨土信仰의 해석」, 『미술사학연구』 279·280, 2013.12.
- 이승희, 「고려 후기 정토불교회화의 연구: 천태·화엄신앙의 요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승희, 「고려후기 입상 아미타불도상의 재해석: 천태16묘관수행법의 영향을 통해서」, 『미술사연구회』 289, 2016.
- 정명희, 「고려시대 나한도의 조성과 신앙 의례」, 『보조사상』 49, 2017.11.
- 정우택, 「唐津 鏡神社 水月觀音圖의 歷程」, 『불교미술사학』 8, 2009.
- 정은우, 「고려시대의 관음신앙과 도상」, 『불교미술사학』 8, 2009.
- 최연식, 「고려 대장경의 역사적 의미」, 『지식의 지평』 11, 2011.
- 한기문, 「고려시기 정기 불교 의례의 성립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27, 2003.
- 한지만, 「북송대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 특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5권 3호, 2016.
- 황금순, 「洛山 설화와 고려수월관음도, 보타산 관음도량」, 『불교학연구』 18, 2007.
- 황금순, 「中國과 韓國의 白衣觀音에 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18, 2014.
- 황금순, 「韓國 千手觀音圖에 보이는 千手觀音 認識과 圖像의 變容」, 『미술사연구회』 30, 2016.

3. 일본어, 중국어 문헌

- 宮崎法子, 「傳齋然將來十六羅漢圖考」, 『鈴木敬先生還曆記念 中國繪畫史論集』, 吉川弘文館, 1981.
- 高崎富士彦, 『日本の美術 234: 羅漢圖』, 至文堂, 1985.
- 谷口耕生, 「聖地寧波をめぐる信仰と美術」, 『特別展 聖地寧波』, 奈良國立博物館, 2009.
- 井手誠之輔, 「大德寺五百羅漢圖の成立背景」, 『大德寺傳來五百羅漢圖銘文調査報告書』, 2011, 奈良國立博物館·東京文化財研究所
- 井手誠之輔, 「華嚴と天台の融合-高麗の阿彌陀画像を手がかりに」, 『高麗仏画-香りたつ裝飾美』, 泉屋博古館, 2016.
- 翁連溪·李洪波 主編, 『中國佛教版畫全集』, 中国書店, 2014.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의 출품작을 중심으로 불교 의례에 있어 불화의 쓰임을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전시에는 20점의 고려불화를 포함해 동북아시아의 교류를 보여주는 총 34점의 불화가 출품되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14세기 후반에서 150년 동안 제작된 작품이 대부분이지만, 기록을 통해 보면 다양한 주제의 불화가 전각을 장엄했다. 불화에 어떤 주제를 그릴 지의 선택에는 교리적인 수요와 신앙적인 의미가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헌과 금석문 기록을 살펴보면 불화의 구성에 있어 교리적인 의미가 절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의례에서의 쓰임에 따라 불화가 예정되고 사용되는 공간에서 기능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화는 사찰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했다. 의례의 정기적 개최는 사찰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의식의 기본 구조가 정립되는 시기였던 만큼 염불과 염송을 위한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의례의 정례화를 위해 장엄구, 의식구와 더불어 불화가 갖춰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존상을 시각화하여 염송을 진행하고, 관상하며 예참하는 절차는 고려시대에 일반화된 실천적 수행 방식이었다. 염불과 염송, 관상, 공양, 참회, 발원과 같은 절차는 오늘날의 불교의례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나 그 의례의 전통이 이미 고려시대에 구체화되고 정립되었음을 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별 의례와 불화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현존하는 기록과 자료의 제한적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의례라는 맥락에서 불화를 볼 때 숨겨져 있던 테마와 고려불화의 풍부한 기능, 더 나아가 고려가 이룬 문화적 성취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Abstract

**The Functions of Paintings in
Buddhist Rituals during the Goryeo Period
- Focus on the paintings exhibited at the ‘Goryeo: the Glory of Korea’-**

Jeong, Myounghee*

This study is a survey of the functions of paintings in Buddhist rituals, focusing on the items presented at the exhibition, “Goryeo: the Glory of Korea,”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irty-four paintings showing the cultural exchanges in the North-east Asia were showcased, including twenty paintings made during the Goryeo period.

Although the remaining works were mostly made in a short period of 150 years from the mid-14th to the end of the 15th century, written evidences reveal that paintings of various themes were used to adorn religious venues. The choice of a theme was likely dictated by Buddhist doctrines and religious intentions, but based on historical records and inscriptions, it can be deduced that the doctrinal significances were not absolute and the functions of paintings were increased according to how they were worshipped and employed in religious practices.

The Buddhist paintings contributed to sound management of temples. Regular ceremonies were of great importance in maintaining religious institutions. As this was a time when the fundamentals of Buddhist rituals were established, there was a high demand for visual images to be used during the practice of Buddhānussati or chants. Buddhist paintings, along with other ornamental or ceremonial objects, were made and kept at temples as religious rituals were regularized.

It became a common religious practice during the Goryeo period to contemplate or

*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visualize particular images in mind when reciting chants, or making prayers and repentance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tradition of recitations, chants, contemplations, offerings, and prayers, all continued to this day, were specifically established during the Goryeo Dynast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articular rituals and paintings with the limited documents and evidences that survive, studying the paintings with a focus on the religious rituals will reveal the unknown themes or functions of the Goryeo paintings, and moreover, the cultural achievements of the Goryeo Dynasty.